전통주거건축 공간구성에 따른 안방창호 구성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지역 중상류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indows and Doors of the Main Room by Space Organization of the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 - Focus on the Upper Middle Class in Jeonlanamdo -

조성우*
Cho, Sung-Woo

이재홍**
Lee, Jae-Hong

문출성***
Moon, Chul-Seong

천득염****
Cheon, Deuk-Youm

Abstract

Korean traditional house has inherite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that contain human requirements with the adaptation to nature's order. As for traditional buildings, there are a lot of facilities like palaces, Buddhist temples, Confucianism architectures, government facilities, etc. Among them, housing construction is not only closely connected to our lives, bu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to connect our lives from the past to present. The master room in a traditional Korean house is responsible for playing a center role of the residential life which implies the traditional values responsible for multi-functions and it is also the sphere of the living space. Therefore, this thesis considers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adjustment method and the behaviors centered around the main buildings of Jeonnam Province. And also investigates the main reason for windows and doors formation. From this, we would like to further evaluate the master room life, and the inner space constructions following the spacial and organizational analysis of windows and doors.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space organization methods, environmental adjustment methods and the usages of traditional buildings. Using the modern interpretation as basis, we would like to use the foundation materials to reflect single family housing plans.

Keywords :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 Master Room, Space Organization, Windows and Doors, Windows and Doors Area, Life Behavior, Residential Environment

주요어 : 전통주거건축, 안방, 공간구성, 창호, 창호 면적, 생활 행위, 주거환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주거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인간의 요구를 담은 고유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건축물에는 궁궐, 사찰, 유교건축, 관아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있다. 그러나 주거건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까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의 도시, 건축 등 많은 시설들은 공업화를 거치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직·간

접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원 고갈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되었다. 이러한 결과 건축분야에서도 에너지와 환경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전통건축이다. 또한 인류의 생활방식을 연구하는데 전통건축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주거에서 안방은 주거생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로는 큰방이라 불리는 안방은 전통적으로는 집안 안주인의 공간으로 근대화의 초기부터는 부부공간으로 부부의 취침, 휴식 및 가족들의 식사, 단란, 위생, 가사작업, 가까운 친지의 응접 등의 다기능을 담당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함축된 한국 주생활의 중심지이며, 전체 주공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전통건축 입면에서 창호는 개구부로써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정면의 대부분이 창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건축은 다른 유형의 건축물과 달리 항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창호는 전

*정회원(주거자), 미래환경도시정책연구소대표,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회원,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정회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ae-Hong Lee, School of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Jeollanamdo 540-950, Korea, E-mail: ljha@sunchon.ac.kr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한국기술개발 2단계) 연구비지원(13AUDP-B070244-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통주거건축 공간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공간성과 그 외의 여러 성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건축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남 지방의 안채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조절 방법 및 행태에 관하여 고찰하고, 전통주거건축에서 창호의 형성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방생활상, 방의 면적 및 구성분석에 따른 실내공간 구성을 평가하여, 전통건축의 실구성 방식과 창호의 형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 하에 단독주택계획에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전통주거와 창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되게 된다. 전통주거공간과 창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전통주거건축 창호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중·일 동양의 전통 주거건축에서의 창호에 관한 연구, 전통주택의 창호와의 건축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로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첫째로, 전통주거공간과 창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거문화와 창호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분류하고 재료적, 구조적, 형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둘째로 전통주거건축 창호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의장적 특성을 규명하고 현지조사와 문헌내용을 바탕으로 의장적 특성과 연결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셋째로 한·중·일 동양의 전통주거건축에서의 창호에 관한 연구는 세 나라의 전통주거공간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창호’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주택의 창호와의 건축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열환경과 음환경의 장비를 설치하여 온도, 습도, 복사온도, 기류속도 등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생리적 특성에 따라 환경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상관관계로 바닥, 벽체, 창호, 지붕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창호와 주거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세 번째의 연구는 삼국의 전통주거건축을 ‘창호’라는 공통요소를 가지고 비교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의 연구는 실측장비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호의 형태유형, 창호의 기능분석, 창호면적과 바닥면적과의 관계, 창호의 길이와 벽면 길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안채의 평면형식과 창호의 형식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두며,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전통주거건축의 생

태적 특성 및 주거환경조절 방식과 주거생활 행태에 대하여 고찰을 한다.

2) 이론 정립을 토대로 남부지방의 전통주거 건축 사례를 선별하고 사례분석 틀을 설정한다.

3) 설정된 틀을 중심으로 전통주거 건축의 안채의 공간 구성 및 창호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4) 분석된 자료를 통해 안채의 창호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도출한다.

5) 도출된 유형을 토대로 현대건축에 접목할 수 있는 계획 방향 및 특징을 정리한다.

II. 전통주거 건축의 이론적 고찰

1. 전통주거 건축의 생태적 의미

생태학(Okologie)이란 말은 독일의 생태학자 헤켈(Ernst H. Haeckel, 1834-1919)이 1866년경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생태학이란 유기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기 환경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문이며 넓은 의미에서 외부환경에 속한 모든 생존조건(정신적, 물질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물학이 동식물들의 개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반면 생태학은 유·무기체와 기체와 집단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¹⁾ 이렇듯 우리 전통주거 건축은 생태학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을 지양하였다. 전통주거 건축은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순응을 꾀하며 주변 환경 조절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건물의 배치, 향을 고려한 배치, 창호의 위치, 평면의 형식 등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즉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써 주거환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 전통주거건축에서의 안방의 의미

전통주택에서의 안방은 계층에 따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민가인 경우 사랑방의 부제로, 안방은 부부 또는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서 모든 주거의 기능이 안방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안채와 사랑채가 분화된 중·상류주거인 경우에는 주거공간에 남녀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하면서 남녀의 지위 차등과 내외사상 등이 조선 주거의 전형적 평면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내훈에서는 예로서 부부는 유별하여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가족은 부부중심이 아닌 내외지법(內外之法)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다. 男女七歲 不動席 不動食으로 흔히 일컫는 내외지법은 주택을 지을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류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담과 문으로 격리시켜 놓았으며,

1) Jin, Y. (2002), A Study on the Ecological-house concept and the Design Application, Master's Program in Architecture Engineering,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Hong ik University, Seoul.

Table 1. Windows and Doors Formation Factor

Divisions	Arrangements	Structures
Ventilation	· Arrangement with adjustable air flow	· The air flow by changing the opening & closing and by using traditional korean paper made from mulberry bark
Lighting	· Arrangement which consider the sunshine amount and the orientation	· Contolling the form of window bars and frames
Soundproofing & heat insulation	· Heating control of the orientaion and sunshine amount	· Changhoji, traditional Korean paper made from mulberry bark is weak · The use of an outer door · Changing the thickness of changhoji
Environment-friendly	· The effort to attract more tastes of the beautiful nature	· Decrease environmental pollution by using eco-friendly materials
Utilization of Space	· Available utilization of space according to opening and closing the windows and doors	· Open method diversifide for available utilization of space

Table 2. Traditional Residentail Architecture Case List & Condition

No.	Regions	Housings	Build Year	Build composition			Form	Plan	No.	Regions	Housings	Build year	Build composition			Form	Plan
				A	MPH	AH							A	MPH	AH		
1	Gokseong	SH Sim	1820	○	○	○	—	S	18	Boseong	JY Lim	1920	○	○	○	—	VR
2	Gurye	JR Un	1756	○	○	○	ㄷ	HR	19	Boseong	BJ Lee	1887	○		○	ㄱ	VR
3	Naju	KE Hong	1892	○	○	○	—	VR	20	Seungju	ST Cho	1934	○	○	○	—	VR
4	Naju	SG Choi	1925	○		○	—	S	21	Yeonggwang	HJ Shin	1856	○	○	○	ㄱ	VR
5	Naju	GJ Hong	1929	○	○	○	—	S	22	Yeonggwang	GH Lee	1895	○	○	○	—	VR
6	Naju	HB Kim	1924	○	○		H	HR	23	Jangheung	YW Go	1852	○		○	—	VR
7	Damyang	JH Ryu	1919	○	○	○	—	VR	24	Jangheung	ST Wie	1914	○	○	○	—	VR
8	Damyang	JH Go	1925	○	○	○	—	VR	25	Jangheung	SY Wie	1946	○	○	○	—	VR
9	Muan	SR Na	1917	○	○	○	—	VR	26	Hampyeong	GH Lee	1750	○			—	VR
10	Muan	BG Park	1920	○	○		—	VR	27	Hwasun	DH Yang	1790	○	○	○	ㄷ	HR
11	Yeongam	CJ Moon	1795	○	○	○	—	VR	28	Hwasun	SS Yang	1860	○	○	○	H	HR
12	Yeongam	Chun	1849	○			—	VR	29	Haenam	JG Min	1845	○		○	—	HR
13	Yeongam	JS Hyun	1902	○	○	○	H	VR	30	Haenam	MS Jung	1930	○		○	—	VR
14	Boseong	SR Lee	1891	○			—	VR	31	Haenam	T Yoon	1906	○	○	○	ㄱ	HR
15	Boseong	YY Lee	1904	○	○	○	—	VR	32	Haenam	WD Rock	1710	○	○	○	ㄷ	HR
16	Boseong	JS Lee	1908	○	○	○	—	VR	33	Haenam	DS Yoom	1811	○		○	ㄷ	VR
17	Boseong	HS Moon	1915	○	○	○	—	VR									

S: Square, HR: Horizontal Rectangle, VR: Vertical Rectangle, A: An Bang, MPH: the Men's Part of House, AH: the Attached House

이러한 차별분리의 원칙 男子居外 女子居內에 의해 남자와 여자는 사랑채와 안채로 나누어 기거하고 안채의 안방은 주인마님, 건넌방은 장자 부에 의해 점유되었다.

3. 전통주거건축에서의 창호의 형성요인

내부공간은 벽, 천장, 바닥으로 한정된 각 실들로 구성된다. 내부 공간은 인간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영역적인 공간의의가 표출되는 곳이므로 인간적 척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벽이 인간과 갖는 관계는 창과 벽이라는 방법 중에서 닫는 것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 건축의 입면 의장은 대부분의 건축이 정면의 거의 전부를 벽체 대신 창호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것이 벽체라면 거기에는 또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장치를 충칭해서 개구부라고 부른다. 위의 두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면 할수록 개구부의 역할을 중요해진다.

본래 문은 벽을 침해하는 개구부이다. 벽이란 어떤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세워져 왔다. 문은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동시에 또 그것을 연결한다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역할의 양의성을 갖고 있다. 또, 문은 천장에 매달 수 있게 하여 융통성을 가지면서 공간의 개방성과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공간의 가변적인 성질을 펼 수 있게 한다.

창은 문과 같이 개구부의 한 종류지만 그 기능과 성격은 달리하면서 내부와 외부로 경계 짓는 요소이자 연결하는 요소이다. 창이란 벽면 또는 천장에 사람의 출입을 용도로 하지 않는 개구부를 일컬으며, 조망, 통풍, 채광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문을 보고 있으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창은 그렇지 않으며 보는 행위를 암시한다.

주거건축에서 여러 방들은 상면하고 있는 창문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좁은 방이라도 창문의 개폐에 따라 외부의 넓은 공간으로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좁은 감을 주지 않고 공간을 느끼는데 필요한 요소인 폐쇄감(閉鎖感)과 개방감(開放感)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공간이 닫혀 있을 때에도 시각적으로는 막혀도 빛과 소리가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므로 지각적으로는 개방되므로 좁은 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건물의 두 면이 개방되어 건물의 내부공간을 통해 내부 공간적 외부공간과 건물 외부의 외부공간이 연계 짓는 기능도 가진다. 창이란 이쪽에서 보낸 저쪽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4. 전통주거건축에서의 창호의 의미와 역할

빈 공간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는 형태가 바뀌게 되고 공간과 시선은 차단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창과 문을 넘으로써 막혔던 부분들이 트이게 되고 공간과 시선은 다시 통하게 된다. “건물에 드나들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문(門)이고 건물의 내부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조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창(窓)이다. 서양의 건축에서는 이 창과 문을 ‘window’와 ‘door’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호(戶)’라는 개념이 하나 더 존재하여 그 구분에 혼란스러움이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호(戶)란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뜻하는 것으로 문과 비슷한 용도로 쓰여 같은 개념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서로 차이는 있다. 즉 문(門)이 주로 건물의 밖에 위치하면서 집(堂)을 드나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호(戶)는 건물의 안에 위치하면서 주로 방(室)을 출입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호(戶)는 그 위치나 생김새가 창(窓)과 유사하여 전통 건축물에서는 창과 호의 구분을 그다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창호(窓戶)라고 이름하여 건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창과 호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머름대 위에 설치된 것을 창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호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창호와 문이 가진 중요한 역할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移動)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실내 온·습도를 조절하고, 채광 및 환기를 통하여 건축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개체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

III. 전통주거 건축의 사례선정 및 유형화

1. 전통주거건축의 사례선정

전통주거건축의 사례선정은 전라남도 지역의 현존하는 전통가옥 중 실측조사가 가능하거나 수리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가옥들 중에서 문화재 지

정가옥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가구구조의 특성 및 공간의 분화, 평면의 형태 등의 건축적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조선 후기부터 1900년대 초반에 건축된 중·상류주택의 안채를 대상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무안, 영암, 보성, 승주, 영광, 장흥, 함평, 화순, 해남 지역의 33개 가옥들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안방 창호형성 요인인 환기 및 통풍, 채광, 방음 및 단열, 환경과의 친화, 공간의 활용 등의 관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여 정량적인 방법인 비례와 공간구성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 전통주거건축 안방의 공간구성에 따른 유형화

전통주거건축의 안방의 창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주거건축의 안방이 갖는 본연의 기능과 성별, 내외법, 공간구성, 바닥면적 등의 요소들과 안방창호의 물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창호의 크기와 면적, 위치, 창호/바닥면적비율, 창호길이 등을 서로 가지고 이를 분류하여, 유형화를 통해 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체계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구의 개념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The Characteristic's Concept Diagram of Main Room & Main Room's Windows and Doors in the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s

전통주거건축의 안방 창호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주거건축 안방을 유형화를 하였다. 유형화의 기준은 안방 주변의 실 구성으로 구성하였다. 전통주거건축의 안방이 갖는 공간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 안방을 앞과 뒤, 좌와 우로 나누어 어떤 실이 접하여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실의 분포에 따라서 총 4가지로 유형화를 분류할 수 있었다. 어떠한 실과 맞닿느냐에 따라 창호의 의미와 역할이 달라 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화에 대한 설명은 <Figure 2>와 같다.

유형 I은 안방은 건물 중앙에 위치하며, 안방 앞에는 텃마루가 있고, 뒤로는 텃마루 혹은 외벽으로 창호가 되어 있는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좌·우의 공간구성은 한 쪽은 정지와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대청이 놓여 있는

Table 3. The An Bang Plan of the Traditional Residentail Architecture

I

<p>IV</p> <p>This analyzes the program for the opening and closing of windows and doors, the area of windows and doors, window/floor ratio, window length/wall lengths ratio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oms and each room connected to the main room. It focuses on the main room in the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analyses the various types.</p>	
II					
III

Figure 2. The Concept of 4 Types in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 Space Organization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바닥면적은 최소 9.1 m²에서 최대 35.3 m²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13.3 m²이다.

유형 II는 안방 위치는 건물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 앞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고 뒤로는 툇마루 또는 외벽으로 창호가 되어 있는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좌·우의 실 구성 한쪽은 정지와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작은방이 접하고 있다. 바닥면적은 최소 5.6 m²에서 최대 10.7 m²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8.8 m²이다.

유형 III은 안방 위치는 건물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고 뒤로는 방 또는 반침이 있는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좌·우의 공간구성은 한쪽은 정지와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대청을 접하고 있는

Table 4. The Categorization of An Bang and Surroundings Organization

Type	Regions	Housings	Orientation	Space organization				Area	Type	Regions	Housings	Orientation	Space organization				Area
				F	B	L	R						F	B	L	R	
I	Naju	KE Hong	SE	T	E	J	D	14.1	II	GokSeong	SH.Sim	S	T	T	J	B	8.6
	Damyang	JH Ryu	SE	T	T	J	D	12.0		Naju	SG Choi	S	T	T	J	B	6.5
	Muan	SR Na	SE	T	T	J	D	11.5		Damyang	JH Go	SW	T	T	J	B	10.7
	Boseong	HS Moon	SW	T	T	J	D	10.5		Boseong	JS Lee	SE	T	T	J	B	10.5
	Boseong	SR Lee	SW	T	E	D	J	10.5		Boseong	BJ Lee	S	T	E	J	B	10.5
	Boseong	YY Lee	SW	T	E	D	J	10.5		Seungju	ST Cho	S	T	T	J	B	10.1
	Boseong	JY Lim	S	T	E	D	J	13.1		Yeongam	CJ Moon	NW	T	T	J	B	5.6
	Yeonggwang	GH Lee	S	T	E	D	J	10.5		Haenam	DS Yoon	W	T	T	R	J	8.1
	Yeongam	Chun	E	T	E	J	D	9.1		Haenam	MS Jung	S	T	T	J	B	8.5
	Yeongam	JS Hyun	SW	T	T	J	D	12.7		Average							8.79
	Jangheung	ST Wie	S	T	T	D	J	10.8	Gurye	JR Un	S	T	B	J	D	13.0	
	Jangheung	SY Wie	W	T	T	J	D	14.1	Naju	GJ Hong	S	T	B	J	D	8.4	
	Hampyeong	GH Lee	SW	T	T	J	D	10.5	Muan	BG Park	S	T	B	D	J	8.9	
	Haenam	WD Rock	SE	T	T	J	D	35.3	Jangheung	YW Go	S	T	B	D	J	7.3	
	Hwasun	DH Yang	S	T	T	D	J	13.8	III	Haenam	T Yoon	S	T	B	D	J	13.0
	Average							13.3		Haenam	JG Min	E	T	B	D	J	9.0
Naju	HB Kim	SE	Y+D	T	J	B	10.9	Hwasun		SS Yang	S	T	B	D	J	13.2	
Yeonggwang	HJ Shin	SE	Y+T	E	R+T	J	11.3	Average							10.4		
Average							11.1										

I	An Bang Position : Center of Building Front of An Bang : Toenmaru Back of An Bang : Toenmaru/Exterior Wall Left and Right of An Bang : Jungji/Main floored Room		III	An Bang Position : Center of Building Front of An Bang : Toenmaru Back of An Bang : Room/Closet Left and Right of An Bang : Jungji/Main floored Room	
II	An Bang Position : Center of Building Front of An Bang : Toenmaru Back of An Bang : Toenmaru/Exterior Wall Left and Right of An Bang : Jungji/Small Room		IV	An Bang Position : Corner of Building Front of An Bang : Main Floored Room + Yard Back of An Bang : Toenmaru Left and Right of An Bang : Jungji/Small Room	

F: Front, B: Back, L: Left, R: Right, Area Unit: m², South: S/SE: Southeast/SW: Southwest/Easr: E/W: West/NW: Northwest, T: Toenmaru/E: Exterior Wall/J: Jungji/D: Daechung/Y: Yard/B: Jaceun Bang

Table 5. The Classicfied Table of Windows & Doors Types and Numbers in The Categorization of An Bang

T	R	H	T&N of Windows&Doors					Fo	Pl	T	R	H	T&N of Windows&Doors					Fo	Pl
			F	B	A	J	Jb						F	B	A	J	Jb		
I	Naju	KE, Hong	W1D2	D1	D3	D2	-	—	VR	II	GokSeong	SH Sim	D2	D1	-	D1	D1D1	—	S
	Damyang	JH Ryu	D2	D2	D1D1	D1	-	—	VR		Naju	SG Choi	D2	D1	-	D4	D4	—	S
	Muan	SR Na	D2	D1	D1D1	D1	-	—	VR		Damyang	JH Go	D2	D2	-	D2	-	—	VR
	Boseong	HS Moon	D2	D1	D1	D1D1	-	—	VR		Boseong	JS Lee	D2	D1	-	D1	D2	⌈	VR
	Boseong	SR Lee	D2	D1	D1	D1	-	—	VR		Boseong	BJ Lee	D2	D1	-	Sd2D1	D1Sd1	—	VR
	Boseong	YY Lee	D2	D1	D1	D1+Sd1	-	—	VR		Seungju	ST Cho	D2	D2	-	Sd2	D4	—	VR
	Boseong	JY Lim	D2	D2	D2	D1Sd1	-	—	VR		Yeongam	CJ Moon	D2	D1	-	-	D1	—	S
	Yeonggwang	GH Lee	D2	D1	D2	D1	-	—	VR		Haenam	DS Yoon	D2	D2	-	D1Sd2	D2	⌋	VR
	Yeongam	Chun	D2	D1	D1	D1	-	—	VR		Haenam	MS Jung	D2	D2	-	D1	D2	—	VR
	Yeongam	JS Hyun	D2D2	D1D1	D2	D2	-	H	HR		Gurye	JR Un	D2D2	D4	D4	-	-	⌋	HR
Jangheung	ST Wie	D2	D2	D2	Sd4 D2	-	—	VR	Naju	GJ Hong	D2	D1	D1	Sd1Sd1	-	—	S		
Jangheung	SY Wie	D2	D2	D2	D1	-	—	VR	Muan	BG Park	D2	D2	D2	-	-	—	S		
Hampyeong	GH Lee	D2	D1	D2	Sd2D1	-	—	VR	III	Jangheung	YW Go	D2	-	D2	-	-	—	VR	
Haenam	WD Rock	D4D2	D2D2	D2	D1	-	⌋	HR		Haenam	T Yoon	D2D2	D2	D2	Sd2	-	—	HR	
Hwasun	DH Yang	D4	D2	D4	Sd1	-	⌋	HR		Haenam	JG Min	D2D2	D4D2	D1	-	-	⌈	HR	
Naju	HB Kim	D2D2	D3	-	D1	-	H	HR		Hwasun	SS Yang	D1D2	D1D1	D2	D1	-	H	HR	
Yeonggwang	HJ Shin	D1D1	D1D1	D1	Sd2D1	-	⌈	VR		-	-	-	-	-	-	-	-	-	

T: Type/R: Region/H: Housing/N: Number/F: Front/B: Back/A: An Bang/J: Jungji

Jb: Jaceun Bang/Fo: Build Form/Pl: Building Plan

D: Door/D: Door Combining Door with a window which can be raised[propped] open/D: Sliding Door/Sd: Storage Door

W: Window/□: Does not apply/■: Unrelatedness/S: Square/HR: Horizontal Rectangle/VR: Vertical Rectangle

Explain the Number: 'D2' mean two-leaf door/ 'D2D2' means the positioning side by side

형태이다. 바닥면적은 최소 6.5 m²에서 최대 13.2 m²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10.4 m²이다.

유형 IV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ㄱ자나 H자 평면의 꺾인 부분에 안방이 있는 형태로 안방의 앞부분은 대청과 마당이 함께하고 있으며 뒤 부분은 뒷마루가 있으며, 좌우로 정지와 작은방이 있는 형태로 공간구성이 구성되었다. 바닥면적은 최소 10.9 m²에서 최대 11.3 m²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11.1 m²이다.

IV. 전통주거건축의 유형별 안방창호 분석

1. 유형별 창호유형 분석

공간구성에 따른 창호유형의 분석은 전, 후, 대청, 정지, 작은방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문의 역할을 하는 창호는 '호'로 표시하였으며, 미닫이문의 경우에는 '호'글자 아래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그리고 창호 중 들문 형식이 되는 문은 호자를 기울여서 표시하였다. 그리고 수납장의 경우에는 '수'로 표시를 하였으며, 각 옆에 있는 숫자들은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창호의 유형 및 개수에서 '호2'는 문으로 두 짝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2호2'는 두 짝으로 된 문이 떨어져서 두 개가 있는 것을 표에서는 의미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전과 후의 창호는 안방의 들고 나는 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채광 및 통풍의 역할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전의 창호의 개수가 후의 창호의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의 형태를 정방형, 횡형(수평 장방형), 종형(수직 장방형)의 구분은 정면(마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가 같으면 정방형, 평면이 가로로 길면 수평 장방형, 세로로 길면 수직 장방형으로 구분을 하였다.

창호의 개수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전면의 창호의 개수가 다른 유형보다 유형 III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유형 I, II, IV의 경우 전후에는 뒷마루와 외부로 구성되었고, 좌우는 정지와 대청 혹은 정지와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진 유형이다. 하지만 유형 III의 경우에는 후의 공간구성이 작은방 혹은 반침으로 되어 있다. 환기의 측면에서 유형 III이 다른 유형보다는 환기성능이 약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형 III의 전면 창호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환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대청과 관계를 맺은 안방들의 경우(유형 I과 유형 III, 유형 IV)에는 전면과의 비슷한 수의 창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후면과의 관계보다는 대청과의 소통을 하는 관계가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름철에 들창이나 미서 기문 형식으로 여름에는 안방과 대청이 단일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당에서의 안방의 시선은 차단하더라도 대청의 트인 공간을 통하여 여름철의 환기와 시원함을 유지하는 환경조절적 역할을 했던 사항이 나타

Table 6. Floor Area, Window & Doors Area, Ratio of WDA & WDL in The Categorization of An Bang

T	R	H	A	Windows and Doors A & Su				WDA/FA			WDL/WL				Fo	Pl
				F	B	FBSu	TSu	F	FB	T	F	B	L	R		
I	Naju	KE, Hong	14.1	1.7	1.5	3.2	5.5	12	23	39	50	33	17	31	—	VR
	Damyang	JH Ryu	12.0	1.8	1.1	2.9	4.5	15	24	38	50	29	10	14	—	VR
	Muan	SR Na	11.5	1.9	1.0	2.9	5.0	17	25	43	48	24	11	26	—	VR
	Boseong	HS Moon	10.5	1.9	0.8	2.7	4.5	18	26	43	44	22	21	15	—	VR
	Boseong	SR Lee	10.5	1.6	0.7	2.3	3.5	15	22	33	44	26	15	10	—	VR
	Boseong	YY Lee	10.5	1.7	0.7	2.4	5.3	16	23	50	44	20	18	31	—	VR
	Boseong	JY Lim	13.1	2.0	0.8	2.8	5.5	15	21	42	46	49	27	18	—	VR
	Yeonggwang	GH Lee	10.5	1.8	1.0	2.8	5.8	17	26	55	44	22	40	15	—	VR
	Yeongam	Chun	9.1	1.8	0.7	2.5	4.0	20	28	44	52	25	16	21	—	VR
	Yeongam	JS Hyun	12.7	3.0	1.3	4.3	8.5	24	34	67	41	21	44	52	H	HR
	Jangheung	ST Wie	14.1	1.8	1.7	3.5	10.9	13	25	78	40	40	57	26	—	VR
	Jangheung	SY Wie	10.8	2.2	1.2	3.4	6.4	20	31	59	50	42	27	16	—	VR
	Hampyeong	GH Lee	10.5	1.7	0.5	2.2	4.7	16	21	44	44	15	21	26	—	VR
	Haenam	WD Rock	35.3	4.7	3.8	8.5	13.2	13	24	37	47	36	27	41	□	HR
	Hwasun	DH Yang	13.8	3.5	0.7	4.2	4.6	25	30	33	53	11	40	10	□	HR
Average			13.3	2.2	1.2	3.4	6.1	17.1	25.5	47.0	46.5	27.7	26.1	23.5		
II	GokSeong	SH Sim	8.6	1.1	0.8	1.9	3.8	13	22	44	23	23	18	35	—	S
	Naju	SG Choi	6.5	2.0	2.0	4.0	10.2	31	62	156	50	50	81	74	—	S
	Damyang	JH Go	10.7	2.0	1.5	3.5	6.9	19	33	64	47	39	53	-	—	VR
	Boseong	JS Lee	10.5	1.7	2.1	3.8	5.5	16	36	52	52	26	13	23	□	VR
	Boseong	BJ Lee	10.5	2.0	1.0	3.0	6.4	19	28	61	48	26	41	31	—	VR
	Seungju	ST Cho	10.1	2.1	1.4	3.5	7.2	21	35	72	58	42	12	52	—	VR
	Yeongam	CJ Moon	5.6	1.9	0.8	2.7	10.4	34	48	185	52	21	-	21	—	S
	Haenam	DS Yoon	8.1	1.8	1.5	3.3	6.4	22	41	79	44	37	40	50	□	VR
	Haenam	MS Jung	8.5	1.8	0.6	2.4	4.9	21	28	58	50	44	17	33	—	VR
	Average		8.8	1.8	1.3	3.1	6.9	21.8	37.0	85.7	47.1	34.2	30.6	35.4		
III	Gurye	Gurye	13.0	3.5	3.5	7.0	11.0	27	54	85	46	46	-	81	□	HR
	Naju	Naju	8.4	1.8	1.0	2.8	4.0	21	33	48	40	20	27	22	—	S
	Muan	Muan	8.9	2.2	1.8	4.0	5.0	25	45	56	44	44	31	-	—	S
	Jangheung	Jangheung	7.3	1.5	-	1.5	6.5	21	21	89	37	-	37	-	—	VR
	Haenam	Haenam	9.0	3.5	1.7	5.2	8.1	39	58	90	55	26	56	28	—	HR
	Haenam	Haenam	13.0	3.6	4.4	8.0	8.9	28	62	68	48	58	24	-	□	HR
	Hwasun	Hwasun	13.2	2.8	1.7	4.5	7.1	21	34	54	50	21	34	17	H	HR
	Average		10.4	2.7	2.0	4.7	7.2	26.0	43.9	70.0	45.7	30.7	29.9	21.1		
IV	Naju	HB Kim	10.9	3.4	2.1	5.5	6.1	31	50	56	61	45	19	-	H	HR
	Yeonggwang	HJ Shin	11.3	1.7	1.3	3.0	5.0	15	26	44	46	36	14	31	□	VR
Average			11.1	2.6	1.70	4.3	5.56	23.0	38.0	50.0	53.5	40.5	16.5	15.5		

T: Type/R: Region/H: Housing/A: Area/Su: Sum/WDA: Windows and Doors Area/FA: Floor Area
WDL: Windows and Doors Length/WL: Wall Length/F: Front/B: Back/FBSu: Front and Back Sum
TSu: Total Sum/F: Front/B: Back/FB: Front + Back/L: Left/R: Right/Fo: Build Form/Pl: Building Plan
S: Square/HR: Horizontal Rectangle/VR: Vertical Rectangle
Area Unit: m²/ Unit of Proportion of WDA to FA: %/Unit of Proportion of WDL of WL: %

나고 있다.

정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호1로써 출입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평면의 특성이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지의 면적이 넓거나 안방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공간을 만들어 수납 문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유형 III의 경우에는 나주 흥기종 가옥과 화순 양승수 가옥을 제외하고는 정지와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방의 뒤쪽에 나있는 작은방이나 정지방 등으로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면의 형태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가로로 긴형태로 되어 있어 뒤쪽에서 정지와 연결을 하고자 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Table 7. The Analysis of Window & Doors Form and Function

Division	Windows & Doors Form and Number				Function of Windows & Doors		
Front
	Four Hinged Doors	Two Hinged Doors	Three Doors	Two of Two Hinged Doors	Ventilation, Insulation, Insect-Proof Doors for Windscreen		
Back
	Single Doors	Complex Doors				Come Out & Come In Window for daylight & Ventilation	
Back
	Four Hinged Doors (Toenmaru)	Two Hinged Doors (Exterior Wall)	Single Doors (Toenmaru)	Window (Exterior Wall)	Equal of illumination	Ventilation	
Side
	Doors of Closet & Jungji	Doors of Main Floored Room & Small Room	Doors of Small Room	Doors of Storage	Access	Ventilation	Storage & Access

작은방의 경우에는 유형 II에 국한된 것인데 작은방은 안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작은방을 통해서 대청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창호의 형식은 들창형식 출입문이나 미서기문 출입문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창호의 개수도 전면의 창호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이는 작은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양 고재환 가옥의 경우에는 작은방과의 단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후의 평면의 변형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용자의 생활행태의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공간구성 유형별 안방면적과 창호면적 및 벽면 길이와 창호 길이 사이의 관계 분석

공간구성 별로 바닥면적과 창호면적의 관계와 창호가 위치한 벽면길이와 창호길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유형별로 바닥면적과의 비율로써 환경조절 방식이나 의존도, 생활행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바닥면적의 경우에는 안목치수로 하여 실제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창호면적의 경우에는 창틀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뚫어진 개구부를 면적으로 측정하였다. 벽면의 길이는 기둥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

유형별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I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대비 전면창호는 17.1%, 전후창호면적 비율은 25.5%, 창호전체 비율은 47.0%에 해당된다. 유형 II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대비 전면창호는 21.8%, 전후창호면적 비율은 37.0%, 창호전체 비율은 85.7%에 해당된다. 유형 III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대비 전면창호는 26.0%, 전후창호면적 비율은 43.9%, 창호전체 비율은 70.0%에 해당된다. 유형 IV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대비 전면창호는 23.0%, 전후창호면적 비율은 38.0%, 창호전체 비율은 50.0%에 해당된다. 유형 I과 유형 II의 차이는 유형 II의 바닥 면적이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위의 두 유형과 유형 III과의 창호면적 비율을 검토하면, 다른 판단이 되어 진다. 유형 III의 경우에는 후면의 창호면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증가

Table 8. Building Characteristic in The Categorization of Main Room & The Relationship Windows and Doors

Type	Floor Plans	Building Characteristics		Space Organization		Windows and Doors Area		Ration of Area (%)		Ration of Length (%)	
I		Position	Center of Building	Front	Toenmaru	Front	2.2 m ²	Front	17.1	F	46.5
				Back	Toenmaru						
		Building Form	—	Back	Exterior Wall	Front Back	3.4 m ²	Front Back	25.5	B	27.7
		Building Plan	Vertical Rectangle	Side	Jungji	Total	6.1 m ²	Total	47.0	L	26.1
		Area	13.3 m ²		Daechung					R	23.5
II		Position	Center of Building	Front	Toenmaru	Front	1.8 m ²	Front	21.8	F	47.1
				Back	Toenmaru					B	34.2
		Building Form	—	Back	Exterior Wall	Front Back	3.1 m ²	Front Back	37.0	L	30.6
		Building Plan	Vertical Rectangle	Side	Jungji	Total	6.9 m ²	Total	85.7	R	35.4
		Area	8.8 m ²		Jaceun Bang						
III		Position	Center of Building	Front	Toenmaru	Front	2.7 m ²	Front	26.0	F	45.7
				Back	Small Room						
		Building Form	—	Back	Closet	Front Back	4.7 m ²	Front Back	43.9	B	30.7
		Building Plan	Horizontal Rectangle	Side	Jungji	Total	7.2 m ²	Total	70.0	L	29.9
		Area	10.4 m ²		Daechung					R	21.1
IV		Position	Corner of Building	Front	Daechung +Yard	Front	2.6 m ²	Front	23.0	F	53.5
		Building Form	Variation	Back	Toenmaru	Front Back	4.3 m ²	Front Back	38.0	B	40.5
					Jungji						
		Building Plan	Variation	Side	Jungji	Total	5.6 m ²	Total	50.0	L	16.5
		Area	11.1 m ²		Jaceun Bang					R	15.5

하기는 했으나 이는 안방뒤쪽에 위치한 방이나 반침과의 들고남을 위한 것이어서 유형 I, II의 뒤쪽 창호는 환기나 채광을 위한 것이지만, 유형 III의 경우에는 환기와 채광보다는 들고남을 위한 생활행위에서 오는 창호로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유형 I, II보다 불리한 주거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형 III은 전면의 넓은 창호와 함께 대청과의 관계를 높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는 창호길이와 벽면길이 비율의 칸에서 음영이 된 부분이 대청과의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다른 유형보다는 길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유형별 평면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 아래와 같다. 유형 I, II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유형 III의 경우에는 안방 뒤쪽에 작은방이나 반침 등이 있어 필요면적을 충족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형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3. 창호의 형태와 기능분석

창호의 형태는 여닫이문과 미서기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위치하는 면에 따라서 여닫이문과 미서기문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위치하는 면에 따라서 창호의 개수가 달라진다. 위의 표와 같이 네여닫이문, 쌍여닫이문, 외여닫이문, 미서기문, 들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창호의 기능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환경 조절방식과 생활행위를 방식으로 구분된다. 창호의 환경 조절 방식으로 채광, 단열, 방충, 통풍, 환기로 구분된다. 주로 전면부는 채광을 위한 것이고, 단열과 방충을 위하여 전면부에는 덧문을 다는 경우도 있다. 전면부에는 쌍여닫이문을 기본으로 네 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대청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들문 등을 두어 환기를 환경조절 방식뿐만 아니라 단일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행위를 위한 경우도 있다. 후면부에는 채광과 환기를 위해 다락 공간 아래에 창을 두었다. 후면부에는 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창을 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지나 작은방으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반침문이나 정지문으로 한쪽을 주로 사용하였다. 정지의 경우에는 수납공간으로 하여 호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생활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형식이다. 특히 정지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수납공간 등을 두어 안방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 론

창호는 주거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호는 실의 용도와 미의식, 환경조절, 생활행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연구대상인 안방은 생활의 주 무대로써, 열기와 음식을 취득하는 정지와 접해있고,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깔아 집안의 각종 의례와 행위를 행하는 장소로 대청, 집안을 들고 나는 텃마루, 보조공간의 역할을 하는 반침 등의 공간구성 요소들과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방을 둘러싼 집의 구조와 창호는 향, 배치, 바닥면적, 실의 구성 등 온열환경조절과 생활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연구의 결과는 총 4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였다.

첫 번째로 유형별 창호 유형을 보게 되면, 일단 유형에 관계없이 전과 후의 창호는 안방의 들고 나는 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채광 및 통풍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크게 안방은 앞과 뒤에 텃마루와 텃마루 혹은 외벽을 가지고 있는 공간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면의 형태도 종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형에 관계없이 정지와 작은방의 관계는 다양한 관계로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유형별 안방과 창호간의 면적비와 벽면과 창호의 길이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형 I이 창호의 면적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작은 것이 아니지만, 면적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평면 형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된다. 수평 방향의 장방형 평면이 유형 I이 가장 작기 때문에 판단된다. 정방형이나 수평 방향이 많은 유형 III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창호의 넓이는 실의 구성보다는 평면의 형태가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III의 경우에는 횡으로 긴 평면이 형성이 되면서 외부와의 환경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창호의 면적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창호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벽면과 창호의 길이의 비는 유형 IV의 경우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물의 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H형이나 ㄱ자형의 특이 형태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형태나 실의 구성 때문에 건물의 중앙에 안방이 놓이지 않고, 건물의 구석에 놓이면서 일정한 형태로 평면이나 채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창호의 형태와 기능면에서의 분석이다. 유

형별 보다는 어떠한 실과 만나냐가 창호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창호의 기능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환경조절방식과 생활행위를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청을 만나는 경우는 환경조절과 생활행위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창호가 형성되었으며, 정지나 창고, 반침 같은 경우에는 생활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방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창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통주거건축에서의 창호는 평면이 면한 부분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안방 전면의 경우 창호를 통한 직접적인 채광과 환기 등 환경조절을 하였지만, 대청의 바닥 뜬 구조 등으로 인한 시원한 주거환경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로 들문 등을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청과 한 공간으로 들문을 통해 단일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집안의 각종 의례를 치를 수 있는 생활 행위도 연출하였다. 이는 각 유형별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정지와 면한 경우에는 여단이나 미단이 문, 창고를 만들어 문을 두는 등 생활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횡형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방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 많은 유형 III이 주거 환경적으로 더 쾌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종형으로 이루어진 평면형이 많은 유형 I이 작은방이나 대청 등과의 이용적 측면에서 더욱 용이하여 생활적인 측면에서 더욱 유익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위의 특징들을 종합으로 유형별 특성을 나열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상호관계형으로 전통주거건축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채의 평면이 상하좌우가 고루 관계를 갖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관계를 맺는 형식에 있어서 창호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면의 형식은 종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유형 II는 독립형으로 유형 I과 같은 평면 형태인 종형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각 실과의 관계는 유형 I과는 다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극히 소극적으로 단지 들고 나는 역할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때론 관계를 맺지않는 실도 있어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III은 환경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환경의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면의 형태도 건축 환경에 유리한 횡형을 띠고 있다. 횡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하여 바닥면적에 따른 창호면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 환경이 유리함을 뜻하는 것이다.

유형 IV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채의 위치가 주동의 꺾인 부분에 위치함에 따라 다소 특이하게 나타나 자리를 잡은 형태이다. 유형 IV는 상하의 창호가 없는 단절된 형태를 보이면서 좌우는 관계를 맺는 이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통주거건축의 창

호는 단일한 이유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과 환경조절적인 측면, 생활상의 이유 등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며, 현재 단독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안방 주변의 공간 구성을 구성하는 방법과 환경을 조절하는 방식,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실제 계획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Heo, J. (2010). *A Comparative Study of Fitting Appearing in the Traditional Dwelling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Houses of Nobility in Joseon Dynasty Period and Siheyuan Housing in Ming·Qing Dynasty Period*. Master's Program in Department of Space & Architectural Desig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2. Jin, K. (2001).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Door and Windows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Kangwon Province*. Master's Program i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3. Jin, Y. (2002). *A Study on the Ecological-house concept and the Design Application*. Master's Program in Architecture Engineering,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Hong ik University, Seoul.
4. Kim, K. (2010). A Study on Interchange in Social Different Position of Traditional Dwelling Clutut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6), 121-130.
5. Kim, M. (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ing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Respect of Spatial Structure and Space Us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2), 101-109.
6. Lee, W. (2013). A Study on the Windows and Doors of Traditional Houses in Jecheo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2(4), 94-103.
7. Lee, S. (2010).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ontrol Methods Expression in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9(3), 128-135.
8. Park, Y. (2005). *A study on the Proportion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Windows and Doors in Korean Traditional Housing*. Master's Program in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9. Park, J. (2005), A Study on the Front Elevation Proportion System in Traditional Housing 'An-Chae'.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e History*, 14(4), 73-86.

접수일(2013. 10. 24)

수정일(1차: 2014. 2. 19)

게재확정일자(2014. 4. 16)